

전남도, 日 공식 순방서 지방외교·관광·수출 성과

지방정부 간 교류·관광·MICE 벤치마킹 향우사회 연대...농수산물 유통망도 확보 금지사 "협력 네트워크 강화 계기" 강조

전남도가 지난달 30일까지 3박4일간 일본 오사카·도쿄 공식 순방을 통해 지방정부 교류, 관광·MICE 산업 벤치마킹, 재일 향우사회 연대, 농수산물 수출 판로 확대 등 분야별 협력 성과를 거뒀다.

순방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일본 공식 방문으로 오사카부 지사 면담, 오사카 유메시마 복합 리조트(IR) 개발계획 청취, 동경호남향우회 간

담회, 일본 유통기업과의 업무협약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오사카부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와 만나 국제행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두 지역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사카의 2019년 G20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운영, 안전관리, 국제협력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공유받고 전남도의 국제행사 유치·운영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관광·문화·첨단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오사카부 사기시마 청사를 방문해 유메시마 복합리조트 개발계획과 국제관광산업 육성 전략도 살폈다. 유메시마 복합리조트는 연간 2천만명 규모의 국내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ICE), 호텔, 쇼핑 등 기능을 결합한 복합리조트 모델을 참고해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와 국제행사, 해양·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재일 향우사회의 협력망도 강화했다. 전남도는 동경호남향우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과 한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경호 동경호남향우회장과 정기욱 재일전남도민회회장 등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동경호남향우회가 일본 현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행사 등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와 고향의 정신을 계승해 온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다.

순방 마지막 일정에선 전남 농수산물품의 일본 유통망 확대를 위한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일본 흡소평·통신판매 전문기업 포티포, 현지 물류·포털먼트 전문기업 노아와 업무협약을 하고 전남 농수산물품의 일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일본 TV흡소평 진출 기반이 마련됐으며, 게이오·도큐 등 현지 대형 백화점 유통망과 연계한 B2B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일본 순방은 지방정부와 기업, 재일 향우사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 계기였다"며 "확보한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전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가 여름철을 맞아 관광 명소와 축제를 한 번에 여행하는 '남도한바퀴' 여름 여행코스 14개를 신규 출시했다. 사진은 영광 백수해안도로 전경. <전남도 제공>

“남도한바퀴”로 시원한 여름 여행 즐겨요

6-8월 14개 코스 해변·섬·숲·미식 한번에 1만2천900원부터...가성비 여행 인기예감

전남도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여름 여행코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남도한바퀴는 버스를 타고 코스마다 3-5개 관광명소의 축제를 한 번에 여행하는 전남도 대표 관광상품이다.

6-8월 운행하는 이번 여름 여행코스는 전남의 여름 정취를 만끽할 14개 코스로 구성됐다.

주요 코스는 ▲선암사, 광양 불고기거리, 요트체험(순천·광양) ▲백양사, 영광 굴비거리,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장성·영광) ▲국립해양수목전시관, 북항 회타운, 목포해상케이블카,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목포) ▲화순 적벽, 관방제림·국수거리,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화순·담양) ▲흥곡사, 교동 수산시

장, 오동도, 아쿠아플라넷(여수) ▲분청박물관, 녹동항 회타운, 금당팔경 유람선 여행(고흥) 등이다.

남도한바퀴 코스별 이용 요금은 최저 1만2천900원부터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가성비 여행으로 각광받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이용객이 1만500명을 넘어설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여름코스는 시원한 해변과 섬, 숲과 정원, 해양레저, 남도미식 등 최고의 여름 여행지로 구성했다"며 "남도한바퀴와 함께 전남 곳곳을 누비며 행복한 추억만들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하반기 청년 일경험 '드림터' 모집

17일까지 접수...인건비 90% 지원 광주·혁신도시·빛그린산단 사업장

광주시가 하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터 사업'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할 '제20기 드림터(사업장)'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터 사업'은 미취업 청년이 지역 사업장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하반기 '드림터' 모집 대상은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그린산단단지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신청 사업장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관련 인종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제20기 드림터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광주시는 참여청년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특히 일경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참여청년을 1년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채용 청년 1명당 최대 200만원의 연계 채용 특전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참여 드림터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드림터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누리집과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일경험드림사업단)으로 하면 된다. /변은진기자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개표, 투표지분류기로 조작 가능?
투표지분류기, 해킹도 조작도 불가능!
#투표지분류기 #부정선거의혹 #팩트체크

팩트체크1 "투표지분류기, 해킹 불가"
투표지분류기는 **펜카드로 장착되지 않아 외부 통신 단절**
투표지분류기에는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어 일반 USB를 통한 해킹프로그램 설치 불가**

팩트체크2 "우리나라 개표, 전자개표가 아닌 종이투표 기반의 수검표"
투표지분류기는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수검표 보조 장비에 불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진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표의 전 과정 수검표로 진행**

팩트체크3 "모두의 눈을 피해 개표 조작, 불가능"
투표지와 투표지분류기는 공무원 등 **개표사무원이 함께 관리**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전 과정 점검 및 촬영**

전남선거관리위원회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